

월요논단



남 동 우
제주대 해양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
예비역 해군 준장

일본과의 '관계 복원',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현재까지 일본의 기사다 내각은 한국과 '위안부 합의' 이행과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법의 차이로 인해 한·일 양국 간 신뢰가 손상되고 양국의 교류·협력이 상당 부분 단절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 지속돼 왔다. 또한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본 정치권의 독도 관련 망언과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도전 문제는 우리 국민의 감정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있으며, 한·일 관계 개선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갈등 상황은 한·일 양국이 공동의 이해를 갖고 있는 역내 안보 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있어 커다란 장애 요소가 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핵 위협이나 중국의 해양팽창 정책으로 인한 해상 위협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행스럽게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한·일 간의 대화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조금은 예상되고 있던 가운데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이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번 5월 일본 기사다 총리의 방한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러한 한·일 간 셔틀외교는 양국이 역사적 갈등 문제로 오랜 시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성사된 정치적 중요한 행사로 안보 관련 대화·교류 채널을

재개해 상호 간의 이해를 넓혀 나갈 필요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뤄져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일 양국은 북한의 진화하고 있는 미사일과 핵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며 중국의 군사력을 동원한 강압과 중국 해경과 해상민병대(어선단)에 의한 해상에서의 위협적 행위 등에 노출되는 등 북한과 중국의 해상을 통한 위협에 관한 한 공동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한·일 양국 간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하지만 안보적 측면에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이 무엇보다도 우선시 돼야 한다. 우리 군은 안보 관련 분야 중에서도 비교적 접근이 쉬운 해양안보 관련 대화를 시작으로 한·일 간의 신뢰를 쌓아 나가야 한다. 이후 미국과의 협력으로 한·미·일 3자 간 협력체제를

갖춰야 한다.
2020년 8월 27일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국가에 대해서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마음이 같은 모든 나라는 함께 뭉쳐야 한다"라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 해양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가 구축되면 낮은 단계에서부터 해양분쟁과 관련된 상황 공유를 시작해야 한다. 왜냐하면 중국이 남중국해는 물론이고 동중국해를 배경으로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있으며 해상민병대와 어선 등을 첨병으로 내세운 해양공세를 이어도 주변 해역까지 확대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췌록 이번 한·일 정상들의 만남을 시작으로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 결과들이 계속 만들어지길 기원한다.

열린마당

봄철 안전한 산행을 위해 알아야 할 작은 상식



홍 희 수
제주소방서 이도119센터

흔히 등산 사고는 실족으로 인한 골절 등을 생각하기 쉽지만 사망까지 이르는 사고는 심장 질환이 가장 많다. 특히 기온 차가 큰 4-5월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등산 중에 급성허혈성심질환이 발생하는 경우 들것이나 헬리콥터로 이송해야 되므로 치료까지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전에 협심증이나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심장질환을 가진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

행 전 알아두어야 할 안전수칙을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아스피린 등 복용 중인 약을 잘 챙긴다. 만약 니트로글리세린 복용 중이라면 비상용으로 등산시에 꼭 지참한다.
둘째 등산 중간에 충분한 휴식을 통해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유의한다. 숨이 차는 정도가 넘어가면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셋째 적절한 수분을 섭취한다. 탈수는 심장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다. 야외활동이나 운동 중에는 10% 이상 수분 보충이 더 필요하므로 등산 중간중간 적절히 수분을 섭취한다.
넷째 남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빨리 오르는 것보다는 본인 스스로 강도를 조절하면서 천천히 등산해야 한다.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습관을 길러 즐거운 산행이 되기를 바란다.

뉴스-in

농작물 재해보험 관심 높아질까?

올해부터 대상에 단호박 추가
올해부터 대상에 단호박 추가
○...어린이날 연휴기간 제주에 이례적인 5월 집중호우가 내리는 등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면 이 찾아지면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농가 관심도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
특히 올해부터는 단호박(제주시)이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으로 추가됐고, 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감귤은 올해부터 품목별로 보험 종이를 연장·세분화해 이달 1일부터 보험을 판매중인 상황.
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 관계자는 "단호박은 올해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해졌고, 감귤은 그동안 농가 건의사항을 반영해 동상해 인정기준을 현실화하고, 보험 종기도 온주감귤 12월 20일, 만감류는 익년 2월말까지로 길어졌다"고 설명. 로미속기자

마늘 수확 공무원 일손 돕기
○...제주시는 마늘, 양파 등 수확 시기인 봄철 영농기를 맞아 6월 9일까지 '농촌 일손 돕기 운동'을 벌일 예정.
7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일손 돕기는 농촌의 초고령 사회 진입과 치솟은 인건비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마늘 수확 시기에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고충을 겪는 장애 농가, 독거 농가 중 고령·여성·소농, 기초생활보호대상 등 영농 취약계층 중심으로 추진.
지난해 2339명의 공직자가 참여해 110개 농가의 일손을 도왔던 제주시는 올해도 농촌 일손 돕기 분위기를 확산을 위해 공직자가 솔선수범해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가족 내 마늘 경작 농가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휴가 사용을 장려할 방침. 전선희기자

사설

전세사기 피해 예방 선제적 대응 강화해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제주지역도 육지부처럼 집단 사기는 아니지만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전세계약 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접수된 도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총 16건이다. 피해 금액은 무려 30억원에 이른다. 월별로 보면 1월 9건 14억4000만원, 2월 4건 7억9000만원, 3월 3건 7억7000만원이다. 타 시·도처럼 집단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세 비율이 도내 전체 임대 주거 형태의 6.7%에 그치는 영향이 크다. 또 제주에서는 연세 1년 임대료를 선지급하는 연세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집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한 요인이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전세사기 집단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전담반을 편성해 피해 예방과 지원, 관리 등 전방위적인 통합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세 제도는 복잡하고 허점이 많아 작은 부주의가 자칫 큰 금전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전세금은 세입자에게 전 재산에 가까운 목돈이다. 때문에 전세계약 전후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전세 기획사기와 조직적 범죄를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지만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정부와 제주도는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해 지원해야 한다.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해야 한다.

청 승격시켜 타지역 옮긴다는게 말이 되나

재외동포청은 지난 2월 말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재외동포재단에서 '청'으로 승격된 것이다. 재외동포재단은 정부와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2018년 7월 서귀포시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문제는 재외동포재단이 청으로 승격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재외동포청 제주 배치를 강력 촉구하고 나선 이유다.
김보민주당 위성곤·송재호·김한규 의원과 같은 당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외동포청은 반드시 제주에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제자유도시 제를 위한 모든 기반이 이미 갖춰져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제주는 중국·필리핀·몽

골·베트남·인도네시아 등의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에 대한 무비자 입국제도가 시행 중이다. 또 국제공항과 크루즈항이 있어 접근성과 편리성이 매우 뛰어나 제주에 존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외동포청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는 소재지 발표를 계속 미루면서 그 배경에 의문이 커진 것이다. 상식적으로 제주에 그대로 둘 방침이 라면 쓸데없는 잡음이 나올 리 없다. 다른 지역으로 이전될 것 이란 전망이 달리 나오는 것이 아니다. 외교부가 있는 서울이나 정부 세종청사가 있는 세종시가 유력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은가. 재외동포재단이 제주로 이전한 지 5년도 안 됐는데 청으로 승격하자마자 옮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는 국토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며 제주도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작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 고
현우송(이스턴투자개발 상무)·현우택(아산종합건설 이사) 어머니 밀양손씨 영신(아산종합건설 회장·향년 67세)
계서 서기 2023년 5월 7일 06시 30분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3년 5월 9일(화요일)
▶발인일시: 2023년 5월 10일(수요일) 오전 7시 3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빈소
▶장 지: 교래리 가족묘지
남 편 현승헌(故)
아 들 현우송 며느리 권경진
우택 김지수
※연락처: 현우송 010-2699-0262
현우택 010-6282-0262
권경진 010-3289-0225
김지수 010-7273-6022

부 고
고기철(前 제주경찰청장) 어머니 군위 오씨 도춘(향년 90세)께서 서기 2023년 5월 6일 20시 23분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3년 5월 8일(월요일)
▶발인일시: 2023년 5월 9일(화요일) 오전 7시 40분
▶발인장소: 서귀포 한빛장례식장
▶장 지: 양지공원→서귀포시 공설공원 묘지(가족영역, 서귀포시 상호동 1947)
남 편 고계정
아 들 고기철 며느리 김미경
정기 김윤희
딸 고옥열
희열 사 위 문택순
경숙
경자 유재운
경재 강기범
손 자 고희주 고희호 고희형 문영민
감지서 고남윤 고채운 오진주
문성지 김주리 김유리 김민경
고지원 강지은
※마음 전하는 곳
국민은행 601525-95-106302 고기철
※연락처: 고기철 010-5349-3012
고기정 010-7695-4755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제주고공 시흥(베드로·前 제주고씨중문회 총본부 회장·향년 85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2년 5월 8일
부 인 좌연선(안나)
아 들 고우철(이오스빙) 며느리 김기선(키라레나)
봉철(스파노) 이선휘
고씨중문회총본부 재) 탐라총묘문화재단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약원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http://www.baekdoraji.com
주소지 선홍2리 웅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